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7월 31일(금)
(음력 6월 18일)
Пятница
31 июля 2026 г.
№ 30 (1219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8월의 첫 일요일은 러시아에서 철도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섬' 및 '사할린 에너지' 포럼 연이어 개최

사할린주 정부의 지원 아래 올해 극동지역 주요 산업행사로 꼽히는 두 개의 대형 포럼이 잇따라 열렸다. 지난 29일-30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섬: 기후와 생태〉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30일부터 31일까지는 제30회 '사할린 에너지'국제 극동에너지 포럼이 진행 중이다.

두 포럼은 동방경제포럼의 외부 연계 플랫폼으로, 러시아 연방 외무부, 에너지부, 경제개발부, 극동북극개발부, 가스프롬, 로스콩그레스 재단 등 주요 기관의 참여로 개최됐다.

먼저 막을 내린 기후 포럼에서는 국가 기후정책개발, 저탄소 사례 확대, 생태계 보전과 환경 부담 완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바이오·블루 경제 및 순환경제 원칙, 배출 감축에서 가스 산업의 역할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국제 극동 에너지 포럼 '사할린 에너지'가 '대륙붕 프로젝트: 새로운 현실 속 성장 동력'을 주제로 한 기조 세션과 함께 막을 올렸다. 이번 기조 세션에는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와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의 비탈리 마르켈로프 부회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는 러시아 각 지역을 비롯해 우호국에서 온 정부, 학계, 재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사할린 에너지' 포럼은 에너지제반시설의 현대화, 디지털 전환과 보안, 대륙붕개발기획(기조 세션)을 중심으로 연료에너지개발 부문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무인항공시스템, 수중 장비, 수소 운송수단, 드론 등을 선보이는 '사할린의 날개' 행사도 동시에 운영 중이다.

두 포럼을 관통하는 공통 의제는 인재양성으로 참가자들은 기후·생태 분야 전문가 육성, 대학의 참여 확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 및 실무 인재 교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사할린의 석유•가스산업단지에 60억 루블리 투자 유치

2024년에 사할린 석유.가스산업단지가 가동된 이래 60억 루블리의 투자금이 유치되었고, 생산시설에 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오는 제 30회 동방경제포럼 〈사할린의 에너지〉를 앞두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대륙붕개발기획 운영사들을 위한 서비스개발에 대해 설명했다.

석유·가스산업단지는 '사할린'선도개발구역에 극동 및 북극개발공사의 지원으로 사할린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그 목표는 대륙붕개발기획 운영사들을 위한 현대적인 생산기술 및 수리의 거점을 구축하는 데 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석유.가스산업단지 건설은 서방의 제재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었다. 기업과 함께 우리는 해외 서비스를 국내 서비스로 대체하는 데 성공하여 국내 핵심 산업인 석유·가스산업을 위한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의 기업들에게는 이것이 기회의 창이자 도전이기도 하다.

현재 12개의 기업들이 석유·가스산업단지에서 투자기획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투입된 투자액이 60억 루블리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사할린 석유.가스산업단지 기지에 가스터빈과 열교환 장비를 수리하는 '사할린 터빈서비스'회사가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생산현장에 구축된 기계가공선반, 공구 및 도구의 일부는 극동지역 전체에서 독보적이다. 이 기업은 2025년 9월에 설립되어 이전까지는 해외 또는 대륙의 외국 계약업체들을 통해 장비를 구매하거나 수리해야 했었던 중요한 에너지 및 석유.가스시설 핵심 장비의 중대한 복구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열병합발전소 1호기 장비 복구 후에 이 기업은 가스터빈의 대대적인 주요 수리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올해 '사할린 터빈서비스'기업은 공랭식 오일냉각기의 열교환 일부 핵심 부품들을 러시아산 자재로 제작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시범기획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단순 복원방식 대신 완전히 장비 재설계 방식을 결정했다.

(3면에 계속)

단신

'사할린' 우주 측정소, 시험 마치고 본격 가동 준비 완료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산하 '러시아 우주 시스템' 홀딩스가 사할린 트라소위 우주계측소의 기술 장비 시험을 마치고 가동 준비를 완료했다.

본 측정소는 워스토츠늬 우주기지에서 발사되는 로켓의 계측 정보를 수집하고, 위성 데이터 수신 및 우주선 제어 지원을 목적으로 구축됐다. 해당 시설은 안테나 시스템과 지구국 위성통신 기지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지구관측위성 데이터 수신 시스템, 명령·계측 기지, 국제위성탐색구조시스템 기지 등이 추가로 확충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을 통해 장비의 내구성과 악조건 속 안정성이 검증됐으며, 염분 섞인 안개, 강풍, 지진 하중 등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함이 확인됐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종양병원, 1인실 호스피스 병동 열어

사할린 주 종양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의 현대화 보수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현대화 작업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 '장수와 활기찬 삶'의 일환으로 '암과의 투쟁'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됐다.

말기 암 환자들은 화장실과 에어컨, 최신 기능성 침대를 갖춘 1인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됐다. 총 10개 병상 규모로 전문의와 심리사 등이 상주하며 통증 완화를 담당한다.

사할린주는 재택 및 외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사할린주, 동절기 대비 난방·상하수도망 53% 교체 완료

사할린주 공공서비스 당국이 다가오는 겨울철 난방시기에 대비한 전력 및 주택공공사업이 시설 정비 계획 53%를 달성했다. 올해 교체 대상인 난방·상수도·하수도 관망 64㎞ 가운데 37㎞를 전면 교체했다.

사할린주의 모든 공공제반시설 정비 작업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는 지역내 겨울철 대비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대규모 에너지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아직 천연가스로 전환하지 않은 단독주택 주민들을 위한 난방용 석탄 공급 작업도 원활히 진행 중이다.

새고려신문

2026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2026 동방경제포럼, 진행프로그램 발표
'포럼이 극동개발의 벡터(힘의 세기, 힘의 방향)를 묻는다'

9월 1일(화)부터 4일(금)까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제11회 동방경제포럼 진행프로그램이 공식사이트에 발표되었다.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는 〈극동 – 주민의 번영을 위한 발전〉이며, 포럼은 러시아 연방 정부의 지원으로 로스콩그레스재단이 주최한다.

극동연방관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대표이자 동방경제포럼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유리 트루트네브는 동방경제포럼이 극동개발의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포럼 행사들은 대규모 투자계약 체결과 획기적인 정책 도출을 위한 핵심을 유지하면서 극동 및 북방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동방경제포럼으로부터 극동 주택담보대출, '헥타르'프로그램, 극동 25개 도시 재개발 계획, 임대주택 건설, 그리고 우대정책개발 등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했다.

포럼을 통해 극동지역에 총 투자액 6조5천억 루블리에 달하는 3천 건의 투자기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1,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설립되어18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보고한 가운데 정부 대표는 오는 포럼이 이전과 같은 성과를 낼 거라 전망하고 있다.

사업프로그램은 5개의 주제를 트랙으로 70개 이상의 회의 및 교육과정으로 구성 되어 〈극동에서 생활과 일〉, 〈민간투자 유치의 구조체계〉, 〈극동 – 국제상호작용의 구심점〉, 〈현재와 미래의 공학〉, 〈경제성장을 위한 물류 및 제반시설 구축〉 등으로 이뤄져 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고문이자 동경경제포럼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안톤 코바코브는 세계가 대규모 사회경제적 변혁을 걱정하는 바는 기존의 경제개발 구조체계가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고, 러시아는 세계적 추세와 국가적 우선순위를 고려해 경제와 사회적 분야와 공공행정을 적응시켜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동방경제프로그램은 선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기업, 전문가들을 단합하게 하고, 또한 올해는 자주적 기술 달성과 국제협력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적 공간 조성(: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지역)에 특별히 중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포럼 활동은 러시아의 장기적 개발전략의 일부가 될 해결책을 도출하고, 핵심 분야에서 선두자리를 확보할 거라고 코바코브 사무총장은 확신했다.

〈극동에서 생활과 일〉 트랙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은 극동의25개 도시들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실행과 임대주택 건설, 인구통계학 프로그램, 과학의 발전, 2030년(2036년까지 전망 포함)까지 극동연방관구의 사회경제발전의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학교에서 기계기술 실습교육 강화, 보충 직업교육개발, 대학 교육과정의 실질적 목표 향상, 공공행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대해 탐구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유치의 구조체계(메커니즘)〉 트랙에서는 극동 광역권에서 경제발전을 주제로 극동지역에서 통합선도개발구역 조성, 기획자금 조달을 위한 '국민 채권' 및 디지털 금융자산 도입, 동부금융 중심지 개발,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 유치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 무엇보다 채굴 및 가공산업과 극동지역의 관광적 매력 증진을 주요 우선순위로 논의한다.

〈극동-국제상호작용의 구심점〉 분야에서는 해외 협력 국가와 극동연방관구와의 경제적 교류 강화에 중점을 둔다. 그중 핵심 주제는 중국 측과 볼쇼이 우스리스키섬의 공동개발, 러시아 사법권 관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 행정제도 도입,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업적 중재 발전 등이 있다. 이 분야에서는 중국·인도·아랍에미리트·몽골·베트남·아세안 국가들의 기업들과 토론이 계획되어 있다.

〈현재와 미래의 공학〉 트랙에서는 극동지역에 정보센터 구축과 제조업의 로봇화, 무인차량 도입, 정부기관의 디지털화, 정부기관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한다.

〈경제성장을 위한 물류 및 제반시설 구축〉 주제에서는 북부지역 공급망, 극동지역의 주요 산업적 교통망 개발, 항공교통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립 및 도시환경 개선을 논한다.

5개의 주요 주제별 토론 외에도 포럼에 창조경제산업, 〈미래의 날〉청년포럼, 〈매의 날〉 국제 환경포럼, 국제 결제시스템 포럼, 고등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콘퍼런스, 〈문명의 교차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역사에서 운송 통합의 역할〉이 진행되며, 사업프로그램의 행사로 〈극동의 거리〉전시장이 개최되어 이에 〈무라비요브 아무르스키 2030〉 기획프로그램에 따른 전체 회의 및 교육일정, 〈2050 블라디보스토크: 미래 도시 설계〉 경영 시뮬레이션게임, 〈극동 – 모험의 땅〉 공모전을 주제로 한 행사 및 극동지역의 관광상품 등이 포함된다.

이모저모

사할린에 한국산 양념 및 조미료제품 공급 2배 늘어

올해 한국산 조미료 및 양념제품을 한 차례 선적으로 사할린주가 수입하는 양은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산 조미료와 양념제품 총 수입 물량의 약 2배에 달했다.

사할린 상점들에서는 새로운 해외 조미료와 양념제품들로 더욱 풍성해졌다. 7월 22일 러시아 연방 농축산물감독청 연해주 지역 간 국립위생감독국은 한국에서 수입된 대규모 조미료 및 양념제품 화물에 대한 통관 및 검역절차를 완료했다.

감독기관에 따르면 종합 조미료들의 물량은 총 102kg에 달하여 코르사코브 식품위생검역소를 거쳐 반입되었다. 식품위생 검역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한국 식품은 사할린 지역에서 공식적인 수입과 지속적인 판매가 승인되었다.

아시아의 조미료와 양념들이 사할린에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과 그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올해 5월에는 일본에서 약 13kg 정도 소량의 조미료와 양념이 사할린에 공급되었다.

2025년 한 해 사할린의 식품위생검역소는 단 두 차례 한국산 조미료와 양념제품 56kg이 조금 넘는 물량을 통과시켰고,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수입량이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Корея увеличила поставки приправ на Сахалин в два раза

За один рейс на остров доставили партию приправ, которая почти в два раза превышает весь объем импорта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 минувший год.

Ассортимент сахалинских магазинов пополнился новой партией зарубежных специй. 22 июля госинспекторы Приморского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оссельхознадзора оформили крупный груз ароматных добавок, прибывший из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ведомстве, партия смешанных приправ общим весом 102 кг поступила через Корсаковский фитосанитарный контрольный пост.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карантинного фитосанитарного контроля нарушения выявлены не были, и корейская продукция получила официальный допуск к ввозу и дальнейшей реализац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поставки азиатских специй на Сахалин носят регулярный характер, однако объемы ввоза заметно выросли. Так,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на острова прибыла небольшая партия приправ из Японии весом около 13 килограммов.

Для сравнения, за весь 2025 год сахалинские инспекторы оформили лишь две партии 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й общим весом чуть более 56 кг. Нынешняя поставка почти вдвое превысила прошлогодние годовые показатели.

사할린에서 알렉산드르 랴셴코 기념 자전거대회 열어

7월 18일 노글리키에서 전과 같이 알렉산드르 라셴코를 기념하는 자전거대회가 열린 가운데 크라스노다르에서 오하에 이르기까지 국내 여러 지역들의 자전거스포츠 애호가들60여 명 이상이 참가했다.

자전거대회 행사는 대조국전쟁 참전 전몰장병 및 동포 기념비 부근에서 출발했다.

참가자들은 7km부터 32km까지 다양한 코스 중에서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었다. 결승점은 웬스코예와 고랴치예 클류치 마을에 마련되어 여기서 자원봉사자들과 응원하는 사람들, 조직위원들이 자전거선수들을 맞이했다.

이번 자전거대회에서32km코스를 50:42초 만에 완주한 차플라노워에서 온 안드레이 샤긴이 압도적으로 우승했고, 56:42초 만에 완주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스웨틀라나 블라셴코가 2위를 차지했다. 매해 알렉산드르 랴셴코를 기념하여 열리는 전통적인 자전거대회에 다양한 연령대와 체력 수준의 스포츠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주최 측은 자전거대회 조직팀과 자원봉사자, 협력자들과 스포츠행사를 도운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했다. 이들의 지원 덕분에 자전거대회는 알렉산드르 랴셴코를 계속 추념하고, 스포츠와 우정과 선행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한 데 모이면서 사할린 방문자들과 지역 주민들, 자전거 애호가들을 다시금 단합하게 했다.

알렉산드르 랴셴코는 특수군사작전에 참전해 공수돌격중대 소총수로 의무를 수행하던 중 2022년11월에 전사했다. 그는 유명한 석유사업가이자 도보여행가이며, 영상블로거이고 오토바이 선수, 사회운동가이자 스포츠인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이후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으로 그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됐다.

На Сахалине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Александра Ляшенко велопробегом

В Ногликах прошёл традиционный велопробег памяти Александра Ляшенко, объединивший более 60 любителей велоспорта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 от Краснодара до Охи. Старт мероприятию был дан у мемориала в честь воинов-земляков, погибших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Участников ожидали несколько дистанций – от 7 до 32 километров, чтобы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мог выбрать маршрут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воей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ой. Финишные точки располагались в районе сёл Венское и Горячие Ключи, где спортсменов встречали волонтёры, болельщики и организаторы.

Абсолютными победителями велопробега стали Андрей Шангин из Чапланово, преодолевший дистанцию 32 километра за 50:42 секунды, и Светлана Власенко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казавшая результат 56:42 секунды.

Традиционный велопробег памяти Александра Ляшенко ежегодно объединяет спортсменов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и уровня подготовки.

В этот день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благодарили инициативную группу, волонтеров, партнеров и всех, кто помог провести спортивный праздник. Благодаря их поддержке велопробег вновь объединил любителей велоспорта, жителей района и гост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хранив память об Александре Ляшенко и собрав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ради спорта, общения и добрых дел.

Александр Ляшенко погиб, исполняя свой воинский долг в ноябре 2022 г. В СВО рядовой Александр был стрелком десантной штурмовой роты.Александр Вячеславович Ляшенко был известным нефтяником,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м-походником, видеоблогером, байкером, общественником, спортсменом.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Ф награждён орденом Мужества посмертно.

〈2026 – 사할린 하프마라톤〉 대회에 사할린의 선수들 참가 요청

오는 8월 16일 사할린 지역에서 아이론사흐 10주년 기념 철인 3종경기의 일환으로 〈2026 - 사할린 하프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

"대회 참가자들은 2개 종목 10km(제한 시간 90분)코스와 21.1km(제한시간 150분)코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전할 수 있고, 마라톤 코스는 평평한 아스팔트로 포장된 해안도로" 라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하프마라톤의 참가자들에게는 공식적으로 경기 시간측정, 기록 및 분석을 제공하고, 특별 완주 메달을 수여한다. 참가인원은 제한되며, 참가등록은 링크 접속을 통해 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경기 참가를 위해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건강진단서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번호표 배부는 8월 10일 – 14일(10시부터 20시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고리키 거리 39번지 육상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경기 출발지점은 오호츠코예 마을, '솔네츠늬'해변이고, 개막식은 7시 45분, 출발은 8시, 시상식은 10시에 진행된다.

Остров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пригласили на «Сахалинский полумарафон-2026»

«Сахалинский полумарафон-2026» в рамках юбилейного триатлона IRONSAKH vol.10 проведут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16 августа. Участники смогут выбрать одну из двух дистанций: 10 км (лимит времени 90 минут) или 21,1 км (150 минут на прохождение).

(8면에 계속)

'토박이' 다큐멘터리, 우즈베키스탄과 상트페테르부르그에 상영

사할린한인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토박이'(감독 도카 안톤, 프로듀서 하 세르게이)가 7월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와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상영됐다.

우즈베키스탄 상영은 'FLC 리유니온(Future Leader's Conference Reunion)'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7일(금) 진행됐다. 17~19일 사흘간 열린 이 행사는 차세대 동포 행사로, 재외동포청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다.

이번 상영에서 프로듀서 하 세르게이가 작품을 소개하고, 관객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젊은 세대가 사할린 한인의 역사와 현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 있다.

상트페테르부르그 상영은 지난 28일(화) 민족회관에서 열렸으며, 도카 안톤 감독이 직접 작품을 소개했다. 이번이 두 번째 상영이었으며, 상트페테르부르그 사할린한인회가 행사 개최를 맡았다.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상영 역시 큰 관심을 끌었고, 참석자 중 절반은 젊은층이었다. 이들은 100분 분량의 장편 다큐멘터리가 흥미롭고 내용이 깊이 있었다며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의견을 모았다.

사할린에서 아직 '토박이'를 보지 못한 관객들은 오는 8월에 열리는 '섬지역의 영상' 사할린영화제 기간 중 상영될 예정이다.

(배순신 기자)

(사진: 도카 안톤 감독 제공)

사할린한인연합회, 냉국수 요리교실 진행

지난 26일(일) 사할린한인연합회에서 연합회 코르사코브 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냉국수 요리 교실이 진행됐다.

이 날 요리교실에서는 다양한 냉국수를 맛볼 수 있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레시피를 공유하며, 정성스러운 상을 차렸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한편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한식 요리교실은 언제나 인기가 많다.

사할린한인연합회는 '45-47' 2세대 클럽 활동가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리교실을 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미나리 비빔밥과 냉국 레시피 및 요리 비법을 배우고 직접 조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한인연합회 제공)

사할린 동포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출범

지난 7월 22일(수) 러시아 연방의 6개 지역과 CIS 국가의 사할린 동포 단체 대표들이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사할린 동포를 대표하는 협의체인 사할린동포협의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새롭게 출범한 협의회는 사할린 동포 사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입법 및 행정부를 대상으로 사할린 동포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회, CIS 지역의 사할린향우회, 사할린주한인협회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이르쿠츠크사할린동포회, 상트페테르부르그 사할린한인회, 로스토브나도누 사할린한인회,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한인이산가족회 등 여러 지역 사할린 동포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이번 협의회 출범이 각 지역 사할린 동포 단체 간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올해 개정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과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협의회 초대 의장으로는 상트페테르부르그 사할린한인회의 최영구 운영위원이 선출되었다. 협의회 측에서는 본 단체 활동에 모든 지역 사할린동포단체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본사 기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사할린의 석유·가스산업 단지에 60억 루블리 투자 유치

(1면의 계속)

'사할린 터빈서비스' 생산부문 계열사인 '포톡에네르고-프로엑트'회사의 이고리 타마로브 회장은 "우리는 가스터빈 설비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핵심요소인 공랭식 오일냉각기 열교환 부품에 대대적인 정밀수리의 시범기획을 완수했다.

모든 수리작업은 자회사 자체 기계공구단지에서 진행되었다. 일부 조립은 우리 공장에서 수압테스트를 통과하고, 주문 기업의 시설에서 부품 재시험을 거쳐 시험운행을 한 후,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복원 수리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해외 공급에서 벗어나 우리 자체의 장비 생산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성공적인 수리는 공랭식 오일냉각기단지의 정기 유지보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회사는 이제 사할린 지역의 에너지를 위한 중대한 핵심 열교환 장비를 수개월씩 기다리거나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사할린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할린 터빈서비스' 기업은 자체 생산시설에 자체 전력발전 및 공기 가열 난방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이러한 해결책을 사할린 지역 전체로 확대 적용할 준비가 되었다.

석유 및 가스산업에서 기술적 자립의 달성은 사할린에서 7월30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사할린 에너지〉국제 동방경제포럼의 핵심 주제들 중 하나이다. 포럼의 일환으로 석유 및 가스산업단지의 두 개 신규 생산시설이 가동될 예정이다.

〈인트라 사할린〉 기업은 연료-에너지 기업의 기술적 장비와 배관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 및 생산복합시설을 개설할 예정이고,

〈아일랜드 제너럴 서비스 -로지스틱카(물류)〉회사는 사할린 전체 석유 및 가스산업 분야를 위한 중요한 물류의 거점이 될 해안 행정 및 생산서비스의 거점을 준비하고 있다.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춘호

관리번호	952661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 춘 호	한자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미상	사망년월일	1921-12-04
본적	미상		

공훈록

1921년 3월 이후 서간도 군비단(軍備團)은 본거지인 길림성(吉林省) 장백현(長白縣)을 떠나 이만에 집결했다. 이후 자유시참변(自由市慘變)을 피해 각지로 분산한 군인들 가운데 연해주에 모인 상해파 인사들과 연합해 독립군 양성을 추진했다. 이들은 1921년 9월 이만에서 고려의용군사의회를 조직하고 산하에 사관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고려의용군사의회는 이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생도들을 기반으로 대한의용군을 조직했다.

1921년 말 이만 남쪽 스파스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은 하바롭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첫 공격지점은 이만이었다. 1921년 12월 4일 대한의용군 제2중대는 이만을 방어하기 위해 이만전투에 참가했다. 이 전투에서 제2중대는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백군과 전투를 벌이다 3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전원 전사했다. 이때 제2중대 중대원 김춘호도 이 전투에서 전사 순국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10월혁명 10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십월혁명십주년 원동기념준비위원회 편찬, 1927) 70~75면

· 러시아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윤상원,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667~676면.

묘소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러시아에서 이주민서비스 국가수수료 인상에 대한 신규 법령 7월 27일부터 시행

러시아 연방 내무부가 외국인 대상 서류등록에 대한 비용을 변경하고,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을 위한 혜택과 자금 상환은 유지했다.

러시아 연방 내무부 이민국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이민국에 제출되는 모든 신청서류에 국가수수료의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힌 가운데 이제 복수비자 발급은 약6천 루블리, 입국 초청장은 8천 루블리라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영주권 발급이 가장 크게 인상되어 3만 루블리에 달하고, 임시거주권 발급은 1만 5천루블리, 유학생 학생비자는 8천 루블리가 되었다.

고용주들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1인당 1만 5천 루블리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취업 허가는 5천 루블리이며, 러시아 연방 시민권 취득 또는 포기 비용은 5만 루블리로 인상되었다. 이와 동시에 내무부는 특수군사작전 시기1년 이상 군복무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들의 시민권과 영주권, 임시거주권 발급에 대한 국가수수료는 전액 면제했다.

국가수수료 납부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은 지역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 정보는 러시아 내무부 공식사이트와 휴대전화 앱, 은행 앱, 이민국 정보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약 외국인들이 예기치 않게 국가수수료를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국가수수료 납부 후 서류신청을 취소했거나, 이민국이 서류 검토 없이 반려한 경우 3년 이내에 국가수수료는 환불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서류접수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사건(예: 범죄관련 기록)에 따라 서류처리가 거부될 경우 국가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В России выросли госпошлины на мигр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новые правила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с 27 ию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РФ изменило стоимость оформл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но сохранило льготы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и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врата денег.

В 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е МВД РФ сообщили, что новые разме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ошлин действуют для всех заявлений, поданных с 27 июля 2026 года. Теперь оформление многократной визы обойдется в 6 тысяч рублей, а приглашения на въезд — в 8 тысяч рублей. Подробности опубликовали в ТАСС.

Сильнее всего выросла пошлина за выдачу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о (ВНЖ), которая теперь составляет 3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лучить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реме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РВП) теперь можно за 15 тысяч рублей, а студенческое РВП для обучения стоит 8 тысяч рублей.

Работодателям придется заплатить по 15 тысяч рублей за каждого привлекаемого иностран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при этом само разрешение на работу обойдется в 5 тысяч рублей. Стоимость приема в гражданство РФ или выхода из него выросла до 50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и этом ведомство полностью освободило от уплаты пошлин за РВП, ВНЖ и гражданство тех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заключили контракт на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в период СВО сроком от одного года.

Реквизиты для оплаты госпошлин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егиона и конкретной услуги. Актуальные данные можно найти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МВД России, в мобильных приложениях и терминалах банков, а также на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тендах в миграционных отделах.

Отметим, что иностранцы могут вернуть уплаченные деньги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если они случайно переплатили, передумали подавать заявление после оплаты или если ведомство вернуло документы без рассмотрения. Если же 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приняла заявление в работу, но в итоге отказала в услуге по существу (например, из-за непогашенной судимости), вернуть пошлину не получится.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оздан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й совет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22 июля 2026 года состоялась онлайн-встреч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стран СНГ.

Главным итогом встречи стало подписание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созда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ого органа —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овый Совет призван консолидировать усил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представлять интерес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ми 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жде всего по вопросам реализац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правки к которому были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В состав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Москвы, стран СН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ОСК и ЮСМООК), Иркутск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Ростова-на-Дону и Владивостока.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выразили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создание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станет важным шагом к укреплению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зволит вырабатывать согласованную позицию по акту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и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отстаивать интерес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оргкомитете по подготовке онлайн-встреч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избран Цой Ен Го(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представитель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хорошо знающий проблемы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по подготовке рабочих материалов, писем и документов вед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3-го поколения - Александр Пак (Москва), Нелли Хан (Алматы), которые хорошо известны своей лидерской позицие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ом не только 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России и СНГ, но 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все трое отлично владеют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что несомненно является большим плюсом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орган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м совете сообщили, что они открыты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 все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СНГ.

(Виктория Бя)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ставил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оруме в Узбекистане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Местные» сахалинских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Антона Дока и Сергея Ха показали участника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ограммы Future Leaders Conference.

17 июля 2026 года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Местные» представили зрителям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рума FLC Reunion Uzbekistan 2026. Площадкой для показа стала программа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Future Leaders Conference (FLC), которая объединяет молодых лидеров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со всего мира.

В этот раз форум собрал участников не только с Сахалина, но и из Великого Новгорода, Воронежа, Волгограда, Нижнего Новгорода, Ростова-на-Дону, а также из Душанбе, Шымкента, Алматы и Ташкента. Ключевая задача мероприятия —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исторического диалога и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меж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азных стран.

Картина «Местные» посвящена малоизвестной истории первых двух поколен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вторы сохранили аутентичный взгляд на события, опираясь на реальные свидетельства и архивные данные. В создании ленты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историки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Герман Ким, Анатолий Кузин, Юлия Дин, Николай Вишневский, этнограф Ким Ен Хи, искусствовед Ольга Хай, журналисты Виктория Бя, Ким Чун Дя, Ри Бок Сун и другие эксперты.

– Съёмки проходили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на Сахалине и в Сочи), но и в Южной Корее, Казахстане и Узбекистане. Работа над картиной заняла два с половиной года. Сегодня мы продолжаем активную фестивальную жизнь, показывая фильм как в России, так и за рубежом, – отметил продюсер ленты Сергей Ха.

Создатели фильма выражают благодарность организаторам форума и Александру Рудольфовичу Дё – представителю сообщества выпускников FLC в странах СНГ, который содействовал организации показа.

(Официальная группа в ВКонтакте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Местные")

АСК провела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

На дворе лето, хочется чего-то прохладительного и вкусного.

26 июля Корсаковское отделение АСК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вместно с активистами и участниками «Клуба 45–47» собралось за одним столом и приготовило заправки для холодной куксу (냉국수). Каждый старался показать свой мастер-класс, делился секретами. Под душевные разговоры продегустировали куксу с разными заправками и оценили мастерство друг друга.

– Как здорово, что простая идея приготовить еду собирает таких разных людей в одну большую семью! Наша задача – делать такие встречи ежемесячными. Хотите научиться готовить или просто отлично провести выходной?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 поделилась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К Ю Е Ни (Наталья Яковлевна).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активисты и члены «Клуба 45–47» попробовали приготовить минари бибимбап (미나리 비빔밥) и нэнгук (холодный суп 냉국). А уже в следующий выходной их ждёт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рисовых шариков чумокпап (주먹밥).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АСК)

Группа «Гальмеги» выступила на ВДНХ

В воскресенье, 5 июля,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ся ежегодный армянский праздник «Абрикос»,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Союзом армян Росси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овет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п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отношениям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осквы.

В этом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на одной из красивейших площадок мира — крупнейшем выставочно-парковом комплексе ВДНХ.

На Центральной сцене у фонтана «Дружба народов»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500 артистов и десятки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которые создали необыкновенную атмосферу праздника «Абрикос».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Дружба народов».

В красочном действе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окальная группа «Гальмеги» (갈매기) Москов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Участницы исполнили песню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оторая была восторженно принята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зрителями.

Общаясь с ведущими на сцене, участницы признались, что будут рады, если их выступления и впредь продолжат знакомить публику с корейскими традициями и культурой.

Наш корр.
(Фото: скриншот с видео)

КНДР отвергла призыв АСЕАН к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и заявила о дальнейшем наращивании ядер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Пхеньян вновь дал понять, что не намерен возвращаться к переговорам 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распространило заявление заместителя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ом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Ким Ё Чжон, ставшее ответом на итоговое заявле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орума АСЕАН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ARF).

Поводом стало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председателя форума -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Филиппин Тереситы Ласаро, опубликованное после встречи глав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ведомств стран АСЕАН. В документе выражалась "серьезная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развитие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и ракетной программ" и вновь подтверждалась поддержка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им Ё Чжон,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также младшей сестрой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назвала такую позицию АСЕАН "откровенно враждебной" и заявила, что форум фактически повторяет американскую линию, игнорируя закрепленный в Конституции КНДР статус страны как яд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о ее словам, сама концепция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утратила смысл как в теоретическом, так и в практическом отношении" и превратилась в "глупую и бессмысленную мечту".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ядерные силы страны являются "высшим средством защи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и будут "непрерывно обновляться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с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расценили заявление как очередное подтверждение того, что Пхеньян окончательно отказался от прежней формулы возмож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в обмен на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сле внесения в 2023 году в Конституцию положения о статусе КНДР как яд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заявляет, что вопрос отказа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больше не подлежит обсуждению.

Нынешнее заявление продолжает линию, которую Ким Ё Чжон проводит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В июне она уже называла ядерную программу КНДР "линией, от которой невозможно отступить". Теперь Пхеньян фактически дал понять, что счита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изывы к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утратившими актуальность и намерен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е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о разоружении, а на дальнейшем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своего ядер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Ли Чжэ Мён: У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К и Бразилии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РК и Бразилия обладают значитель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для расшир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и этом авиация,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е полезные ископаемые и косметика – это те области, где две страны могли бы добиться наибольше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ая 28 июля в бразильском Сан-Паулу на круглом столе с участием лидеров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двух стран. Как отмет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несмотря на значительный потенциал, объём двусторонней торговли остаётся небольшим. «Революц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И) и изменение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быстро трансформируют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порядок. На этом фоне поиск партнёра, с которым РК может создать синергию, используя сильные стороны друг друга, важен как никогда»,- отметил Ли Чжэ Мён. «Если иннов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РК объединятся с богатыми ресурсами Бразилии, две страны смогут стать оптимальными партнёрами, способными создавать стабильные цепочки поставок и отрасли будущего»,- добавил он. По итогам делового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подписаны семь меморандумов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и бразиль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РК завершила разработку сверхзвукового истребителя KF-21

Разработка KF-21 «Порамэ» - первого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истребителя, созданного на основ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й, -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ена. Как сообщили 29 июля в Корейском агентстве оборонных закупок, первый серийный образец новой боевой машины будет передан военно-воздушным силам РК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Проект KF-21 стартовал в августе 2001 года по инициативе тогда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Ким Дэ Чжуна. Системная разработка началась в декабре 2015 года, в апреле 2021 года был создан прототип, а в марте этого года – первый серийный образец KF-21.

Закон об АПЛ закрепит отказ РК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рограммы создания атомных подводных лодок (АПЛ), будет содержать пунк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обязательство Сеула не разрабатывать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источник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По их данным, проект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 29 июл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ункт будет гласить следующее: «РК не должна разрабатывать, производить, хранить и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а также заниматься какой-либо деятельностью, связанной с ядер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ми для создания оружия массов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а также подрывающей доверие к системе ядерног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 случае принятия закона, обязательство РК не разрабатывать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будет впервые закреплено официально.

Рождаемость в РК в мае максимальная за 7 лет

Как сообщили 29 июл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данными, в ма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РК родились 23.160 детей, что на 13,6%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Число новорождённых растёт с июля 2024 года, а майс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тал максимальным с 2019 года. Суммарный коэффициент рождаемости, то есть, среднее число рождений на одну женщину в течение её жизни, составил 0,85,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0,10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В мае в стра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0.368 браков, что на 6,4% мен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Число разводов сократилось на 3,9%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до 7.122. Количество умерших составило 29.573 человека,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3,8%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же месяце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Это максима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мертности для мая за всю историю наблюдений.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составила 6.413 человек.

Выездной туризм из РК вновь начал расти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ке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Коре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19 июля, в ма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за рубежом побывали 2.340.345 граждан страны. Это на 2,4%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месяцем.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который на протяжении четырёх месяцев сокращался на фоне высоких цен на нефть и пад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валюты, вновь начал расти. Самым популяр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остаётся Япония, которую посетили 951 тысяча южнокорейцев или 40,6%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выехавших за рубеж. Далее следуют Вьетнам (278 тыс.), США (100 тыс.), Тайвань (79 тыс.), Таиланд (64 тыс.), Филиппины (61 тыс.) и Гонконг (59 тыс.). Средние расходы на одного туриста составили 1.007 долларов, что немного превышает показатель предыдущего месяца, составлявший 982 доллара.

RKI

В Сеуле оценили решение ЕС о возможности им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го СПГ

В Сеуле с удовлетворением вос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Евросоюза, которое позволит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должить импорт российского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с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2".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Чжэ Мён назвал известие "приятной новостью" 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охранение поставок поможет обеспечить энергетическ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страны.

"В условиях растущей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с поставками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это, как ожидается, окажет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граждан и нашей экономике", - написа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X (заблокирована в РФ).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о время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 июне саммит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ЕС лично объяснил европейским руководителям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делать исключение рад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раны и попросил их уделить этому вопросу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Советом ЕС 23 июля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в рамках 21-го пакета санкций против России.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24 июля, о его содержании официально сообщи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едомство назвало исключение практическим результато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усилий Сеула и важным решением для стабильного энергоснабжения страны.

Новая норма позволяет европейским компаниям до 31 марта 2028 года оказывать услуги,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доставки СПГ с "Сахалина-2" в Южную Корею и Японию. Речь идет прежде всего о транспортном, техническом, посредническом и финансовом обслуживании перевозок. Именно попадание этих услуг под санкции создавало угрозу срыва поставок, поскольку в морской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е газа значительную роль играют европейские страховые, финансовые и сервисные компании.

Исключение из санкций касается СПГ, произведенного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2", поставляемого по уже действующему долгосрочному контракту.

(Олег Кирьянов)

Упор на ИИ: Ли Чжэ Мён привез из Сан-Франциско соглашения на $950 млрд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Чжэ Мён завершил насыщ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визита в Сан-Франциско, центральной темой которого стало превращение Южной Кореи в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мировых центров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Глава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стретился в США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ведущих американски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и венчурных фондов, собрал за одним столом мировых лидеров ИИ-индустрии и глав крупнейших корейских корпораций, а также объявил о серии проектов общей стоимостью около 95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Кульминацией поездки стал саммит по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В нем участвовал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Nvidia Дженсен Хуанг, глава OpenAI Сэм Альтман, руководитель Anthropic Дарио Амодеи и глава Broadcom Хок Тан. Южно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 представлял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Samsung Electronics Ли Чжэ Ён, председатель SK Group Чхве Тхэ Вон, глава Hyundai Motor Group Чон Ый Сон и основатель интернет-компании Naver Ли Хэ Чжин.

Программа не ограничивалась официальны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и переговорами за закрытыми дверями. Значит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прессы привлек неформальный ужин, во время которого президент и бизнесмены ели жареную курицу и пили пиво.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четание курицы и пива давно известно как "чимэк" и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почти как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Организаторы встречи явно стремились создать атмосферу, в которой руководители крупнейших компаний могли бы общаться без обычной протокольной скованности. Ли Чжэ Мён назвал всех собравшихся за столом "членами одной семьи".

При этом за пивом и курицей обсуждались суммы, значительно превышающие бюджеты многих государств.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а президент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РК объявила о новых проектах корейских и американских компаний в сфере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общей стоимостью около 95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Крупнейший пакет соглашений связан с SK Group. Его общая стоимость оценивается примерно в 75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В эту сумму входят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SK Hynix с Nvidia на сумму более 50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е поставки передовых микросхем памяти и участие в создании н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Samsung Electronics,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дписала меморандум с Broadcom, охватывающий поставки памяти, услуги контрак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и передовую упаковку микросхем. Потенциальная стоимо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ожет достигнуть 20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и их зарубежные партнеры также договорились развивать крупные центры обработки данных дл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х совокупная мощность должна составить около пяти гигаватт, а вычислитель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 включать примерно два миллиона граф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ров.

Отдельный проект представила корейская IT-компания Naver. Она намерена создать сеть глобальных "ИИ-фабрик" стоимостью около 1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на основ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Nvidia и соглашения о поставках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 канадско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компанией Brookfield.

Центральным политическим документом визита стала "Сан-Францис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по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В ней Ли Чжэ Мён изложил свое видение места Южной Кореи в мирово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системе.

"Южная Корея совершит рывок и станет незаменимой ключевой страной в глобальной цепочке поставок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По его словам, страна намерена использовать свои ведущие позиции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микросхем памяти, чтобы стать надежно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базой для ИИ-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и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партнеров глобальн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бизнеса.

Сеул хоч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развива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центры обработки данных, собственные модел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робототехнику и практическое применение ИИ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логистике, транспорте и сфере услуг.

Южная Корея должна стать не только поставщиком оборудования, но и испыта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ой, где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будут быстро внедряться в реальную экономику.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оздаст новый рынок, на котором весь мир сможет расти вместе, став не только ключевым поставщиком, но и страной, которая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и быстро использует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 подчеркнул Ли Чжэ Мён.

Президент также провел отдельные встречи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Nvidia, OpenAI, Anthropic и Broadcom. Переговоры с каждой из компаний были посвящены конкр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от поставок чипов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центров обработки данных до разработки новых моделе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их внедрения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Еще одн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программы стали переговоры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крупнейших венчурных фондов Кремниевой долины, включая Andreessen Horowitz, Sequoia Capital и General Catalyst. Обсуждались инвестиции в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тартапы и создание постоянного механизм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американскими фондами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пенсионной службо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к отмечают эксперты, Ли Чжэ Мён попытался охватить сразу всю цепочку развит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роизводство микросхем, вычислитель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разработку программных решений и венчур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Специалисты признают: масштаб объявленных сумм впечатляет, но указывают, что относиться к ним следует без излишнего восторга.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рассчитана на много лет, а некоторые пока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меморандумы или общие план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Это не означает, что на счета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уже поступило 95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Речь идет о совокупной потенциальной стоимости поставок, инвестиций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проект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ий нефтегазовый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парк привлек более 6 млрд рублей инвестиций

Заработавший в 2024 году Сахалинский нефтегазовый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парк уже привлек порядка 6 млрд инвестиций, а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лощадках резидентов создано более 300 рабочих мест. В преддверии 30-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орума «Энергия Сахалина» о развитии сервисов для операторов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ов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ект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реализуется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 Он нацелен на созд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технической и ремонтной базы для операторов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ов.

— Создание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стало нашим ответом на западные санкции. Совместно с бизнесом мы успешно замещаем иностранные услуги отечественными, вместе создаем базу для сувер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технологий в ключевой для нашей страны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это вызов и окно возможностей.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реализуют 12 резидентов. Суммарный объем вложенных ими инвестиций превышает 6 млрд рублей,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менно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работает предприятие по ремонту газовых турбин и теплообм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Сахалин Турбина Сервис». Часть станочной и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й базы, развернутой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лощадях, не имеет аналог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едприятие было открыто в сентябре 2025 года, и здесь уже выполнили работы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и нефтегазовых объектов, которое ранее закупали и ремонтировали за рубежом или на материке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иностранных подрядчиков. Так, посл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оборудов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ТЭЦ-1 компания запустила программу капитальных ремонтов газовых турбин.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 Турбина Сервис» успешно завершила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по замене ответственных элементов теплообменной секции аппарата воздушного охлаждения масла (АВОМ) на узлы, изготовленные из россий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Вместо традиционног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ам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олном перепроектировании оборудования.

— Мы выполнили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по капитальному ремонту теплообменной секции аппарата воздушного охлаждения масла – ключевого элемента для надежной работы газотурбинных установок. Все работы проводились на собственном станочном парке предприятия. Собранная секция успешно прошла гидравлические тесты на нашем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овторные испытания на объекте заказчика, после чего была введен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и сейчас работает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 Мы не просто провели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й ремонт, но заложили основу для выпуска эт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у нас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сключив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ставок из-за границы,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ПотокЭнерго-Проект»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актив «Сахалин Турбина Сервис») Игорь Тамаров.

Успех этого ремонта открыл путь к плановому обслуживанию парка АВОМ. В компании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теперь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е теплооб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энергетики региона может обслуживаться на Сахалине без многомесячных ожиданий и посредников. Кроме того,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 Турбина Сервис» внедрила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площадке собственную генерацию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и воздушное отопление. Эти решения предприятие готово масштабировать в регионе.

Достижени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в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станет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т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орума «Энергия Сахалин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30-31 июля.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состоится запуск двух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 резидентов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Компания «Интра Сахалин» откроет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комплекс для ремонта и техниче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оборудования и трубопроводов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Айлэнд Дженерал Сервисес-Логистик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готовит к открытию береговую базу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которая станет важным логистическим узлом для все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сектора Сахалина.

Губернатор открыл крупный коммунальный объект на Сахалине – водозабор «Южный»

Ранее в регионе не возводили объекты водоснабжения подобного масштаба и конфигурации. Многие инженерные решения были реализованы впервые. В торжественном открытии водозабор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Росводоканал» Сергей Эмдин.

«Южный» обеспечит стабильным водоснабжением 65 тысяч человек. К нему подключены как старые микрорайоны, так и новостройки в жилых комплексах «Южный парк» и «Горизонт», а также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объекты – поликлиника в Хомутово, школа и детский сад.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водозабора – 20 тысяч кубометров воды в сутки, что уже само по себе является значительным шагом вперед в обеспечении потребностей города. Но в проекте заложен резерв мощности –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ее можно увеличить до 32 тысяч кубометров в сутки.

– Значение сегодняшнего события трудно переоценить. Тысячи семей получили доступ к чистой воде высокого качества, независимо от сезона и пиковых нагрузок. Кроме того, мы заложили фундамент для развит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десятилетия вперед –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и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для рост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егодня занимает пятое место в стране по качеству жизни. И водоснабжение в этом рейтинге играет далеко не последнюю роль. Это то, что важно для каждой семьи, для здоровья людей, для комфорта. Отдельные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 «Росводоканалу». Серьезная работа и достойный результат!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есто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одозабора было выбрано неслучайно. Гидрологическая экспертиза подтвердила: здесь залегают богатые водоносные горизонты. Уже в скважине вода соответствует нормам. Но перед подачей потребителям он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тупени очистки и обеззараживания. Водоподготовка организована одним из самых современных и экологичных способов – с помощью поваренной соли экстра-класса.

Многи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были применены впервы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и в стране. Резервуары чистой воды стали самыми крупными, которые когда-либо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ммунальном хозяйстве. Объем каждого составляет 5 тысяч кубометров.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одозабора «Южный» произвели насосы с уникальными конструктивными решениями – такой размер еще не был использован ни в одном аналогичном проекте в России. Немаловажно, что новые насосы рассчитаны и на повышенную сейсмику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Раньше подобные насосные группы выпускались только за рубежом. Но отечеств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выпустили их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водозабора на Сахалине. Кроме того, здесь применено двойное резервирование по скважинам.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объект не только способен наращивать объем подачи воды, но и обеспечивает высокую надежность системы. Важно и то, что запуск водозабора позволяет приступить к реконструкции более старых сооружений. Для жителей это пройдет незаметно, 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при этом будет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обновляться, – рассказал Сергей Эмдин.

С запуском «Южного»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вывести из эксплуатации четыре маломощных, морально и физически устаревших объекта, а также реконструировать исторический водозабор «Рогатка», который функциониру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же более века.

– Действующие водозаборы, обеспечивающие потребности горожан, были построены еще в прошлом веке. За это время и оборудование, и сами сети заметно устарели, физический износ уже давно дает о себе знать. Поэтому запуск нового современ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с отечеств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 это серьезный шаг к надежному и стабильному водоснабжению жителей. Важно и то, что даже в непрост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проект удалось довести до реализации.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реш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который поддержа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сегодня мы видим результат, – подчеркну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Отметим, проек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одозабора «Южный» был реализован по концесси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ВЭБ.РФ.

– Водозабор «Южный» –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элементов развития города и пример эффектив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Это современный и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й объект, напрямую влияющий на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людей. Его создание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слаженной работ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осводоканала» и ВЭБ.РФ,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ВЭБ.РФ Олег Говорун.

Всего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предоставил более 9,7 млрд рублей на создание новых и реконструкцию действующих объектов ЖК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6,8 млрд рублей составил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оекта водозабор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ручил знаки отличия лучшим выпускникам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ручил знаки отличия за особые успехи в учении группе выпускников.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состояла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з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4 году был учрежден региональный знак отличия за особые успехи в учении. Его вручают выпускникам 11-го класса, которые имеют полугодовые (триместровые), годовые и итоговые отметки «отлично» по всем предметам учебного плана, а также набрали по каждому предмету Ед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экзамена не менее 75 баллов. Вместе со знаком отличия и Почетным дипломом особо отличившиеся школьники получают премию – по 115 000 рублей.

- Сейчас вы, уважаемые выпускники, решаете, в какой вуз поступить, где потом трудиться. Считаю, лучший выбор – это учеба и работа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гиона создает все условия, чтобы вы могли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таланты и способности,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троится современный кампус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Уже возведен комфортабельный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Вуз будет готови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заказам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островных компаний. У вас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здесь,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получить качественное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занять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ое рабочее место. Если вы едете на материк,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специальность, по которой не готовят в наших вузах, возвращайтесь с дипломом назад.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быстро развивается и превосходит по качеству жизни многие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Нам нужны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Уверен, если вы свяжете дальнейшую судьбу с Сахалином и Курилами, то сможете успешно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таланты и способности,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этом году знаки отличия получили 55 выпускников из 11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Эт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нивский, Долинский, Корсаковский, Невельский, Охинский, Поронайский, Смирныховский, Томаринский, Холмский и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районы.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6 знаков вручены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сельских школ.

Олеся Соколова – выпускница школы № 2 города Анива. Она собирается поступать в Сахал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специальность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География и туризм».

- Попробую себя в роли преподавателя, а также турагента. И дальше хочу работать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Область развивается, для молодежи создаются хорошие условия, - поделилась планами Олеся.

Арсений Шурмелев из лицея № 1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каждом из четырех экзаменов набирал более 94 баллов. Общая сумма – 384 балла. Благодаря своим успехам смог поступить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гор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 После учебы собираюсь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работать в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Нашей области нужны специалисты. У «Газпрома» открываются новые объекты. Поэтому, я думаю, работой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все, - отметил Арсени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 островным школьникам был вручен 51 знак отличия за особые успехи в учении.

Впервы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еспилотник выполнил доставку медицинских грузов

В рамках поручения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ширяется сфера применения гражданских дронов. 21 июл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еспилотник впервые выполнил не тестовую, а реальную доставку медицинских грузов.

Полет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компанией «Аврора БАС».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использовался аппарат самолетного типа «Аист» компании «Дрон Солюшнс». Беспилотник преодолел 32 километра: доставил лекарственные препараты из Корсаковск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в село Озерское и вернулся в райцентр с пробирками с образцами крови пациента. Онлайн-мониторинг полета был обеспечен платформ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и на базе госсистемы «ЭРА-ГЛОНАСС», созданной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 Мы выбрали регулярный маршрут, по которому из Корсакова перевозят лекарственные препараты в Озерское, а обратно – анализы, так как в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нет лаборатории. Ранее доставку дронами медицин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или только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были соблюдены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грузов, чувствительных к температурам. Производитель беспилотника, компания «Дрон Солюшнс», доработал аппарат «Аист». Теперь он оснащен термобоксом, который подключается к бортовой сети. Условия хранения соблюдаются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какая температура за бортом — либо отрицательная, либо, наоборот, очень жарко, как это было в день перевозки. Кроме того,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сброса груза на парашюте,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БАС» Дмитрий Третьяков.

В компании отмечают: альтернативный воздушный маршрут может быть востребован во время бездорожья, к примеру, после зимних метелей, а также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срочной доставки материалов. Первый полет «Аиста» от Корсакова до Озерского длился 19 минут, что в два раза быстрее доставки автомобилем.

—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важна для экстренных случаев, когда речь идет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перативного получения анализов или доставке специального груз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Елена Левина.

— Это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который показал реалистичность наших сценариев. Мы оттачиваем проекты, связанные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а затем распространяем этот опыт на весь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не только, - подчеркну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Константин Сухоребрик.

«Аврора БАС» сотрудничает с компанией «Дрон Солюшнс» с 2023 года. Именно российский беспилотный авиационный комплекс «Аист» это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совершил первый перелет по правилам гражданской авиации с Сахалина на материк в 2025 году. Дрон пролетел 162 км: маршрут начался в Охе и завершился в Николаевске-на-Амуре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국이라는 공통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국내 체류 차세대동포 57명, 모국에서 미래를 그리다

재외동포청, '2026 국내체류동포 청소년・대학생 역사문화캠프' 마무리

"두 나라 사이의 정체성이 이제는 나의 강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은 달라도 한국이라는 공통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러시아・CIS, 중국, 베트남, 호주, 멕시코 등에서 귀국해 국내에 정착한 차세대 동포 57명이 모국에서의 5일 동안 자신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고 한국에서 살아갈 자신의 미래를 그렸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26 국내체류동포 청소년・대학생 역사문화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이민의 역사와 독립운동, 분단과 평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이민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안중근 기념관, 파주 DMZ 등을 찾았다. 이어 성수동 문화거리와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한강 등을 방문하며 오늘의 대한민국도 직접 체험했다.

특히 먼저 한국 사회에 정착한 선배 동포들과의 만남은 참가자들에게 가장 큰 울림을 남겼다.

삼성전자 개발자와 고려대 연구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선배들은 한국에서의 진로와 정착 경험을 들려줬고, 참가자들은 현실적인 조언을 들으며 자신의 미래를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

또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도 함께 진행해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익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이번 캠프가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에서 넘어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경희대에 재학 중인 고려인 조알렉스 학생은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온 환경은 달라도 한국이라는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려인 조안나 학생은 "두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 사이에서 늘 고민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그것이 오히려 나만의 강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재외동포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강점으로 성장하고 싶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규현 아주러시아동포과 과장은 "이번 캠프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모국에서 함께 호흡하며 연대 의식을 확인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차세대들이 모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착 지원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한•독 재외동포 협력 첫걸음"… 국제협력 방안 논의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 면담을 통해 양국 재외동포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22일 재외동포청에서 펠릭스 요나단 글랭크(Felix Jonathan Glenk) 신임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을 만나 한국과 독일 간 재외동포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한스자이델재단은 독일 '기독교사회당'의 정당 재단으로 '민주주의와 평화 및 발전을 위한 봉사'와 '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해 1967년 출범하였으며, 전 세계 약 50개국에서 학술·교류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국사무소는 1987년 개소하여 DMZ 중심 지속가능 사업, 북한 현지 무역·유기농·환경 분야 역량강화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글랭크 소장은 한스자이델재단은 독일 재외동포재단*과 협력하여 전 세계 독일계 동포들의 모국과의 연계 유지 및 거주국과 독일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재외동포청과도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독일 재외동포재단은 독일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익 재단으로, 전 세계 독일계 소수민족 동포들의 정체성 유지와 영향력 제고 목적으로 활동

또한, 글랭크 소장은 양국 재외동포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의 참여와 협력을 제안했다.

김 청장은 "이주민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해 한국과 독일 양국 간 '재외동포'를 매개로 한 새로운 협력 기반이 구축되고, 교류·협력 관계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전자투표는 700만 동포의 숙원… 정쟁 아닌 참정권으로 접근해야"

이 대통령 샌프란 동포 간담회서 "전자투표 도입"

언급하자장동혁 대표, "전자투표는 고양이게 생선 맡기는 꼴"

반대재외동포 단체, "재외동포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투표율 10% 벽 허물려면 전자・우편투표 도입 시급"

재외동포와 시민단체들이 재외국민 전자투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야당 지도부를 향해 "재외동포 정책은 여야를 떠난 국가적 과제"라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700만 재외동포 시대에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만큼, 전자투표 도입 논의가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투표는 특정 정권에서 처음 제기된 정책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재외동포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재외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 방안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전자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며 재외선거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외국민 투표제도 개선 구상과 관련해 "전자투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까지 가서 '전자투표' 도입을 운운했다"며 "국민 참정권조차 빼앗아 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국민들은 지금의 선거제도도 믿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의 '전산 조작'까지 드러난 마당"이라며 "그런데 전자투표까지 도입하겠다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외동포사회는 장 대표의 이런 주장에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동포사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새로운 정치적 제안이 아니라 오랫동안 논의돼 온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방안을 다시 공론화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재외국민들은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현실적으로 투표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재외동포청이 국회에서 개최한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재외동포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토론회에서는 재외선거 참여율이 10%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투표소 확대와 함께 우편투표, 전자투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선거권을 가진 재외국민은 약 197만 명에 달하지만 역대 총선과 대선에서 실제 투표율은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투표율은 10.4%에 불과했다. 전 세계 118개국에 설치된 투표소는 223곳뿐이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고, 항공료와 숙박비는 물론 생업까지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은 국가별 여건에 맞춰 우편투표와 대리투표, 전자투표 등을 운영하며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국가 전자신분증을 기반으로 전자투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각종 위탁선거와 정당 경선 등에 활용되고 있어 기술적 기반은 이미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재외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면/출처: 연합뉴스

고상구 세계한인연합회장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투표 방식이 아니라, 개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며 "영국은 우편투표와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는 해외거주 국민에게 인터넷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 초 성명을 통해 "공관 투표소가 마련된 대도시 거주자 외에 수백·수천 명 단위로 흩어져 사는 대다수 재외국민에게 선거 참여는 '생업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었다"며 "투표소가 멀다는 이유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버려지는 작금의 사태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 자산이자 민간 외교관"이라며 "전자투표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점배 아중동한인연합회 회장은 "야당 대표의 발언은 글로벌 시대, 세상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200만 재외유권자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병구 미주한상총연 회장도 "미국은 시간이 돈이다. 투표를 하려면 하루동안 일을 못한다"며 "우편투표나 전자투표를 실시해야 재외동포들의 투표율을 올릴수 있다. 장 대표의 발언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경수 재외동포교류협회 이사장은 "재외국민 정책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역대 정부와 정치권 모두 재외동포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해 왔던 만큼, 이번에도 초당적인 협의를 통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외동포청 역시 재외선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경협 청장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2박3일 일정으로 투표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입법 결단과 선거관리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Трасса пролегает по ровному асфальтированному шоссе вдоль побережья.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ждый спортсмен получит официальный хронометраж и уникальную медаль финишера.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ограничено.

Регистрация проходит по ссылке. Для участия обязательны оригинал и копия медицинской справки о допуске к соревнованиям не старше 6 месяцев.

Выдача номеров проходит с 10 по 14 августа (10:00–20:00)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ица Горького: дом № 39,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й манеж.

Место старта: село Охотское, пляж «Солнечный». Парад открытия в 7:45, старт в 8:00,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в 10:00.

상금 3백만 루블리, 여행에 대한 영상 공모전에 사할린 주민들의 도전 기대

제 4회 〈극동. 모험의 땅〉 전국 영상공모전이 러시아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사할린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사할린 지역의 독특한 자연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참가자들에게 다큐영상의 전문적인 제작기술을 요하지 않는다.

주최 측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익숙한 장소에 대한 신선한 시각, 창의적인 접근방식으로 촬영한 것이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맥스(MAX) 채널을 통해 전했다. 여행에 대한 영상들은 소셜네트워크에서 수백만의 조회수를 얻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상금에 도전할 수도 있다. 〈극동. 모험의 땅〉 공모전의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3백만 루블리를 수여한다.

공모전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여행의 여정을 촬영하고, 좋아하는 지역의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하이킹, 자전거여행, 해상여행을 촬영해 보여줄 수 있다.

이 기획의 주요 취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이상적인 수많은 여행코스와 활동적인 휴식을 위해 적합한 지역임을 증명해보이는 데 있다.

제작된 영상들은 주최 측이 러시아 연방 푸쩨셰스트웬닉 디비(путешественникдв.рф) 공식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сили побороться за 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конкурсе фильмов о путешествиях

В России в самом разгаре четвертый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Он дает шанс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казать всей стране уникальную природу островов. Для участия авторам не нужн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навыки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кино. Организаторы отмечают, что для победы достаточно иметь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свежий взгляд на привычные места и творческий подход, сообщили в MAX-канал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добные ролики о путешествиях не только собирают миллионы просмотров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но и претендуют на солидный денежный приз. Главный победитель конкурс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получит 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могут снимать свои туристические походы, рассказывать о любимых природных локациях, а также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пешие, велосипедные или водные маршруты. Главная цель проекта —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доказать, что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идеально подходят для больших путешествий и активного отдыха.

Организаторы ждут готовые видеоработы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проекта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дв.рф.

사할린에서 불곰 사냥 신청서 접수 시작

사할린주 산림수렵사업청이 2026년 8월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불곰 사냥시기를 발표했다. 개인 신청 접수는 7월24일에 시작되어 신청서는 고스우슬루기 포털을 통해서 또는 개별 방문으로 접수한다고 산림수렵사업청이 전했다.

수렵인의 개별적 사냥을 위한 신청서 제출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콤무니스티체스키 거리 396, 339호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15개의 지방자치단체의〈사할린 산림청〉 지부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산림청의 전문가들은 사냥규정의 중요한 변경으로 사냥신청서에 최대 두 차례 연속 사냥 기간만 허락되며, 두 차례 총 사냥 기간은 30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수렵인들은 불곰 사냥 후 10일 이내 또는 사냥시기 종료 후 포획한 동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사냥 허가증을 발급받았던 곳에 다시 반납하는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на добычу бурого медведя стартовал на Сахалине

Агентство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ъявило сроки проведения охоты на бурого медведя в 2026 году — сезон продлится с 10 августа по 10 декабря.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от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откры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27 июл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ведомства,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 лично или через единый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Охотники могут подать документы лич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 адресу: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дом № 39б, кабинет 339, либо обратиться в районные филиалы ГКУ «Сахалинские лесничества» в 15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области.

Специалисты ведомства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на важное изменение в правилах: теперь в заявлении можно указать максимум два непрерывных периода охоты, а их обща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не должна превышать 30 календарных дней. Кроме того, охотникам напоминают о строгой обязанности сдать разрешение обратно по месту получения в течение 10 дней после добычи зверя или после закрытия сезона, обязательно заполнив все сведения о трофее.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RADIX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싣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윅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